

WEBVTT

00:00:09.093 --> 00:00:11.495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희입니다.

00:00:11.520 --> 00:00:18.229

이번 시간에는 매우 재미있는
그리고 서정적이며

00:00:18.942 --> 00:00:23.695

또 슬픈 소설 한 편
함께 만나봅니다.

00:00:34.177 --> 00:00:39.571

조세희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
작은 공, 이런 제목이에요.

00:00:40.597 --> 00:00:44.462

이 작품을 난쏘공이라고
줄여서 말합니다.

00:00:44.487 --> 00:00:46.983

난쏘공 하면 많은 사람들이
다 알아들어요.

00:00:47.008 --> 00:00:51.642

그만큼 한 시대의 천장을 찢던
작품이죠.

00:00:53.582 --> 00:00:58.556

여기에서 여러분, 난장이가
쏘아올린 작은 공.

00:00:58.581 --> 00:01:02.196

난장이,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
좀 필요합니다.

00:01:02.495 --> 00:01:06.876

난장이라고 할 때 장이는
전문가를 말합니다.

00:01:06.901 --> 00:01:09.040

대장장이 같은 이런 거죠.

00:01:09.902 --> 00:01:17.019

그런데 정확하게 지금은 난장이라고
하지 않고 난쟁이라고 합니다.

00:01:17.044 --> 00:01:21.244

난쟁이는 좀 비하하는 것 같은,

00:01:21.509 --> 00:01:26.655

예컨대 요술쟁이 같은 이런.

00:01:26.991 --> 00:01:33.901

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이를테면
야뇨증을 가지고 있으면

00:01:34.063 --> 00:01:36.549

오즘쟁이,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

00:01:36.711 --> 00:01:40.911

쟁이는 약간 비하하는 것이고
장은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

00:01:40.936 --> 00:01:42.808

난쟁이가 맞는 거죠.

00:01:42.833 --> 00:01:44.609

그런데 조세희가 이 글을 쓸 때는

00:01:44.634 --> 00:01:51.035

그와 같은 구분에 대한 정확한
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난장이라고 썼고

00:01:51.370 --> 00:01:55.703

그래서 이걸 지금 고치지는 못합니다.

00:01:55.728 --> 00:01:57.490

왜냐하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.

00:01:57.665 --> 00:02:01.865

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
작은 공이라고 쓰고 제목은.

00:02:02.053 --> 00:02:04.652

그다음에 이 작품을 설명할 때는

00:02:04.677 --> 00:02:10.432

난장이 문제라든지 난장이성 인물
이렇게 하지 않고

00:02:10.457 --> 00:02:16.128

난쟁이의 문제, 난쟁이성 인물
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.

00:02:16.153 --> 00:02:18.357

조금 복잡하죠.

00:02:18.607 --> 00:02:24.037

조세희는 대학 선배입니다.

00:02:24.244 --> 00:02:29.695

그리고 체가 있는 대학에서
학과장을 할 때

00:02:30.058 --> 00:02:34.258

겸임 교수로 한 2년간 강의를
나오기도 했어요.

00:02:34.972 --> 00:02:39.053

1942년생, 경기도 가평에서
출생했습니다.

00:02:39.078 --> 00:02:41.133

작가 조세희를 말합니다.

00:02:41.560 --> 00:02:48.373

196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
당선이 되었습니다.

00:02:48.505 --> 00:02:50.761
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죠.

00:02:51.796 --> 00:02:59.450
65년이면 이분이 20대 초중반,
스물서넛 이렇게 되던 때죠.

00:03:01.007 --> 00:03:11.053
그리고 한 10년간 시간을
보낸 다음에 75년 연말부터

00:03:11.115 --> 00:03:16.994
칼날을 비롯한
난장이 연작을 발표했습니다.

00:03:17.234 --> 00:03:20.698
이럴 때 우리는 난쟁이
연작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.

00:03:21.350 --> 00:03:31.852
78년에 3년간 난쟁이 연작을 써서
이것을 묶은 소설집을 냈는데

00:03:31.897 --> 00:03:34.863
그것이 난쟁이가 쏘아올린
작은 공입니다.

00:03:34.888 --> 00:03:40.544
이어서 시간여행, 침묵의 뿌리
이런 작품집들을 냈습니다.

00:03:41.801 --> 00:03:43.457
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

00:03:43.482 --> 00:03:47.673
이 70년대는 경제 개발
5개년 계획이

00:03:47.698 --> 00:03:50.745
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
시작하던 때입니다.

00:03:50.770 --> 00:03:53.659
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
박정희 정권 때

00:03:53.684 --> 00:03:56.095
1962년부터 시작되었죠.

00:03:56.454 --> 00:04:00.654
그래서 빠르게 산업화, 공업화가
진행되면서

00:04:01.993 --> 00:04:06.385
산업 사회의 경제적 외형은
크게 성장하고

00:04:06.410 --> 00:04:08.859
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

00:04:08.884 --> 00:04:12.633

그와 함께 어두운 면들이
드러나기 시작합니다.

00:04:12.694 --> 00:04:23.301

그러니까 도시 노동자 또는 빈민
또 궁핍한 농촌 문제,

00:04:23.326 --> 00:04:29.343

이런 것들이 사회의 하나의 이면으로
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

00:04:29.693 --> 00:04:32.690

조세희라는 작가는 이와 같은
시대 상황 속에서

00:04:32.715 --> 00:04:37.164

노동의 현장 문제를
침예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을 썼고

00:04:37.189 --> 00:04:42.803

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는
작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.

00:04:44.750 --> 00:04:48.950

이 작가 외에 이 시기에
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,

00:04:48.975 --> 00:04:54.232

황석영의 객지라든지 윤홍길의
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

00:04:54.257 --> 00:04:55.429

이런 작품들.

00:04:55.551 --> 00:04:59.947

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 시대의
경제적 불균형의 문제,

00:04:59.972 --> 00:05:05.038

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면모를
드러내는

00:05:05.223 --> 00:05:07.632

그런 작가의 작품들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05:09.161 --> 00:05:16.849

황석영의 객지는 지식인이면서도
막노동꾼인 이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

00:05:16.874 --> 00:05:23.196

간척 공사장에서 막노동 생활을 하면서
투쟁을 하다가 패배하는 이야기,

00:05:23.221 --> 00:05:24.313

그다음에 윤홍길이 쓴

00:05:24.338 --> 00:05:29.232

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
연작 작품은

00:05:30.050 --> 00:05:35.717

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
철거 이주민 입주권을 산 소시민

00:05:35.742 --> 00:05:41.621

권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
철거민투쟁위원회에 참여했다가

00:05:41.646 --> 00:05:50.662

실패한 후에 공장 잡역부가 되지만
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

00:05:50.772 --> 00:05:55.987

결국은 밀려나는 거죠.

00:05:56.012 --> 00:05:59.122

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
그들과 유대를 회복하려고 하지만

00:05:59.147 --> 00:06:01.250

그것 자체가 또 잘되지도 않습니다.

00:06:01.434 --> 00:06:06.152

이런 산업 사회의 모순과
노동 현실의 질곡을 드러냅니다.

00:06:06.177 --> 00:06:08.028

왜 아홉 켈레의 구두냐?

00:06:08.072 --> 00:06:12.324

이 사람이 구두 아홉 켈레를
반짝반짝하게 윤이 나도록 닦아서

00:06:12.349 --> 00:06:13.652

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

00:06:13.677 --> 00:06:18.243

이것은 지식 현장을 떠난 지식인으로서

00:06:18.268 --> 00:06:22.145

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
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죠.

00:06:22.170 --> 00:06:25.020

매우 독특한 이야기 구조죠.

00:06:27.775 --> 00:06:35.035

조세희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
작은 공이라고 하는 연작 소설집은

00:06:35.060 --> 00:06:37.441

12편의 단편이 묶여 있는 것이고

00:06:37.466 --> 00:06:41.488

그 속에 등장하는 난장이 일가를
중심으로 해서

00:06:42.481 --> 00:06:46.681

아주 힘겨운, 비참한 생활 환경

00:06:47.259 --> 00:06:54.877

또 그에 대비되어서
가진 자들이 누리는

00:06:57.233 --> 00:07:03.021

그러니까 빈부격차의 문제에서 보면
매우 불합리한

00:07:03.046 --> 00:07:10.527

그런 부의 축적 같은 이런 것을
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07:11.042 --> 00:07:14.743

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
대립을 뼈대로 하는데

00:07:15.372 --> 00:07:22.382

이 구조는 이것을 함께 바라보는
중간 계층을 등장시켜서

00:07:22.597 --> 00:07:28.751

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의 문제라든지
노동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.

00:07:28.776 --> 00:07:32.317

가장 어려운 층은 이 난장이 일가죠.

00:07:32.342 --> 00:07:38.261

신체적인 불구, 그다음에 아무것도
가진 것이 없는

00:07:38.577 --> 00:07:40.078

빈한한 계층이라고 하는 것

00:07:40.103 --> 00:07:45.180

이런 이중적 타자, 이중적 고통 속에
있는 거죠.

00:07:45.205 --> 00:07:49.405

극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
바로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뜻이고

00:07:49.430 --> 00:07:52.011

난장이의 큰아들 영수는

00:07:52.036 --> 00:07:57.656

인쇄공장에서 노비 매매 문서
책으로 만드는 걸 보고서

00:07:57.681 --> 00:08:02.441

우리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
바쳤다고 진술합니다.

00:08:02.774 --> 00:08:07.953

조상 대대로 이어 온 일이고
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.

00:08:07.978 --> 00:08:11.831

여기에서 난장이들을 돕는
지섭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등장하는데

00:08:11.856 --> 00:08:19.082
이 대학생이 판자촌을 철거하려는
철거반원들 앞을 가로막고서

00:08:19.107 --> 00:08:19.907
이렇게 말합니다.

00:08:19.932 --> 00:08:23.652
이 집 부술 수 없다.
이 집은 500년도 더 된 집이다.

00:08:23.677 --> 00:08:28.900
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조선조를
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부터

00:08:28.944 --> 00:08:34.277
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
살아온 삶의 현장이 있었다는

00:08:34.302 --> 00:08:35.885
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

00:08:37.651 --> 00:08:42.256
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는
은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.

00:08:42.281 --> 00:08:45.159
은강은 어디 있는 도시가 아니라
익명의 도시죠.

00:08:45.184 --> 00:08:48.170
작가가 매설한 도시의 이름입니다.

00:08:48.528 --> 00:08:53.570
은강의 회장이 나오고 또 셋째 아들
경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

00:08:53.595 --> 00:08:54.921
자본가죠.

00:08:55.014 --> 00:08:58.906
이들은 그 자본의 선두 그룹에서
탈락하지 않기 위해서

00:08:58.931 --> 00:09:02.302
온갖 자본의 자기 증식을 시도하고

00:09:04.942 --> 00:09:08.918
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
어떤 어려움에 있는지

00:09:08.943 --> 00:09:14.394
또는 중화학 기업에 있기 때문에
발생하는 직업병의 문제들이 어떠한지

00:09:14.419 --> 00:09:18.110
이런 것에는 관심을
가지지 않습니다.

00:09:18.495 --> 00:09:27.210
그러니까 이런 전혀 다른 방향을

바라보고 있는 사람들

00:09:27.551 --> 00:09:29.121

또 그들의 세계관.

00:09:29.146 --> 00:09:31.584

이런 것이 이 작품 속에 매우

00:09:33.141 --> 00:09:35.668

어떤 강력한 투쟁의

모습으로서가 아니라

00:09:35.693 --> 00:09:39.341

서정적인 아픔과 슬픔의 문제로

드러나 있는데

00:09:40.218 --> 00:09:44.418

바로 그와 같은 서정적인

이야기를 통해서

00:09:44.443 --> 00:09:49.667

예컨대 팬지 꽃 두 송이를

오염된 물에 던지는 것이라든지

00:09:49.692 --> 00:09:51.332

이런 모습이죠.

00:09:52.091 --> 00:09:54.199

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

00:09:54.224 --> 00:09:57.637

조세희라는 작가의

글쓰기의 능력입니다.

00:09:57.940 --> 00:10:02.720

이 속에 등장하는 중간 계층은

사회의 모순을 개선하려는 자와

00:10:02.745 --> 00:10:06.444

이를 답습하려는 자

또 그 중간에 있는 자.

00:10:07.125 --> 00:10:10.713

이런 여러 모습이 함께 있는데

00:10:10.738 --> 00:10:13.632

지섭이라고 하는 대학생

또 윤호라고 하는 인물

00:10:13.657 --> 00:10:20.351

이런 인물들은 사회적 모순을

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

00:10:20.376 --> 00:10:25.914

그래서 지섭은 지식인 노동

운동가로서 공장 노동 현장에서

00:10:25.939 --> 00:10:30.904

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현실을

몸으로 경험하고 개선하려고 하는

00:10:30.929 --> 00:10:32.969

온갖 노력을 다합니다.

00:10:32.994 --> 00:10:41.812

변호사의 아들 윤호는 상류층이지만
난장이 일가의 어려움을 목격하고

00:10:41.837 --> 00:10:45.922

난장이 일가가 사는 동네 이름이
행복동입니다.

00:10:45.947 --> 00:10:52.640

그 빈민가를 보고서 정말
이 극악한 현실에 눈뜨고

00:10:53.172 --> 00:10:55.621

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

00:10:55.646 --> 00:11:03.002

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섭보다는
좀 소극적인 개선주의자,

00:11:03.027 --> 00:11:05.976

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
그런 인물이죠.

00:11:07.213 --> 00:11:11.772

조세희라는 작가는 객관적으로
여러 계층의 갈등과 충돌 양상을

00:11:11.797 --> 00:11:15.000

냉정한 어조로 그리고 있는데

00:11:16.163 --> 00:11:23.739

그렇지만 그의 팔은 억눌린 자,
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굽어 있습니다.

00:11:24.673 --> 00:11:32.558

실제로 80년대의 데몬스트레이션
현장에서

00:11:33.341 --> 00:11:37.311

조세희라고 하는 작가는
사진으로 그 광경을 찍다가

00:11:37.729 --> 00:11:41.983

경찰에 사진기를 빼앗기고
그 사진기가 부서지고 하는

00:11:42.008 --> 00:11:45.440

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

00:11:45.801 --> 00:11:49.023

그러니까 사진기를 딱 붙잡아서
뭐 하는 사람이냐?

00:11:49.048 --> 00:11:50.546

작가입니다.

00:11:50.571 --> 00:11:53.890

작가?

맨날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?

00:11:53.915 --> 00:11:55.762

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.

00:11:56.202 --> 00:12:04.113

그래서 난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장인물은

00:12:05.883 --> 00:12:09.468

육체적 불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

00:12:09.493 --> 00:12:14.299

그것이 곧 1970년대 또 8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어서

00:12:14.324 --> 00:12:19.613

한국 사회가 생산과 소비, 분배 구조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

00:12:19.638 --> 00:12:24.802

그 계층을 표상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드러납니다.

00:12:25.542 --> 00:12:29.525

그래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등장하는 난장이 가족들,

00:12:29.550 --> 00:12:37.955

이 가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형편이 어렵고 열악하지만

00:12:37.980 --> 00:12:39.804

난장이들은 뭔가 꿈을 꿉니다.

00:12:39.829 --> 00:12:40.980

어떤 꿈을?

00:12:41.103 --> 00:12:48.840

이 작품의 끝부분에 가면 까만 쇠공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

00:12:48.865 --> 00:12:52.341

이런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.

00:12:52.483 --> 00:12:55.912

어떻게 여러분, 까만 쇠공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갈까요?

00:12:56.059 --> 00:13:02.361

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탈출의 절절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

00:13:02.386 --> 00:13:06.023

지섭이 난장이들을 우주인이라고 말합니다.

00:13:06.048 --> 00:13:10.448

우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,

00:13:10.473 --> 00:13:14.673
정말 속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만
살아가는 것이 아니라

00:13:14.698 --> 00:13:18.449
정신적으로 이것을 초월해서
새로운 천국을 바라보고

00:13:18.474 --> 00:13:22.001
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꿈꾸는

00:13:22.189 --> 00:13:27.806
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지명이
역설적으로 상징하는 바와 같이

00:13:27.831 --> 00:13:33.335
철거 이주민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
삶의 현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,

00:13:33.360 --> 00:13:35.876
그런 꿈을 꾸다고 하는

00:13:36.035 --> 00:13:40.235
이런 소설적 방향성을
가지고 있는 거죠.

00:13:40.520 --> 00:13:43.907
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
실제로 이 인물들은

00:13:43.932 --> 00:13:47.491
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고
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거나

00:13:47.516 --> 00:13:49.748
더 힘든 상황으로 가지만

00:13:49.951 --> 00:13:55.410
작가는 언젠가는 또 반드시
이와 같은 도시 빈민들이,

00:13:55.435 --> 00:14:01.098
어려운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
새롭게 꿈꾸는 세상,

00:14:01.123 --> 00:14:02.828
마치 우주인과도 같은,

00:14:02.853 --> 00:14:08.427
까만 쇠공이 하늘을 일직선으로
가르며 날아가는 것과 같은

00:14:09.123 --> 00:14:14.474
그런 미래를 상정하고
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

00:14:14.499 --> 00:14:17.095
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

00:14:19.749 --> 00:14:25.584
난장이의 아들 영수가 죽는데

죽는 것은 뭐냐 하면

00:14:25.609 --> 00:14:30.709

결국은 가진 자들이
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것

00:14:30.734 --> 00:14:36.350

이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의
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

00:14:36.375 --> 00:14:39.921

그것을 부수려고 하는데

00:14:40.678 --> 00:14:43.893

결국은 그게 그렇게 쉽게
부서지는 것이 아니고

00:14:43.918 --> 00:14:46.089

자기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.

00:14:46.114 --> 00:14:49.206

이 난장이와 영수의 죽음이라고
하는 것은

00:14:49.231 --> 00:14:51.681

현실적이지 사설적인 세계고

00:14:51.706 --> 00:14:57.301

그다음에 이 작가와 또는 작품 속의
인물들이 추구했던 천국,

00:14:57.326 --> 00:15:00.439

우주인이 날아갈 수 있는
천국이라고 하는 것은

00:15:00.464 --> 00:15:03.536

상상의 세계고 추상적인 세계이지만

00:15:03.561 --> 00:15:11.540

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
사람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

00:15:11.565 --> 00:15:13.537

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15:13.562 --> 00:15:18.414

이 작가는 이런 열악한
노동 현실을 다루면서도

00:15:18.968 --> 00:15:21.653

이것을 이념의 칼날로
무장하지 않았습시다.

00:15:21.678 --> 00:15:24.226

투쟁 중심의 구호를
앞세우지 않았어요.

00:15:24.480 --> 00:15:27.905

따뜻하고 보편적인 인간애에 호소하고

00:15:28.556 --> 00:15:31.614

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

00:15:31.639 --> 00:15:35.372

이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
사람들에게 있어서

00:15:36.276 --> 00:15:41.716

노동자들을 옹호해 주는
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이다.

00:15:42.089 --> 00:15:45.686

또 노동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

00:15:46.379 --> 00:15:49.874

자본 권력에 대한 고발이
되지 않겠는가?

00:15:49.899 --> 00:15:56.364

조세희는 이것을 매우 감성적이고
미학적인 문체로 보여주고 있고

00:15:56.525 --> 00:16:02.859

문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
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도록

00:16:02.884 --> 00:16:07.283

이끄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
볼 수가 있습니다.

00:16:07.562 --> 00:16:12.301

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,
난쏘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

00:16:12.535 --> 00:16:16.233

시대를 넘어서서도
여전히 생명력을 가질 것이고

00:16:16.258 --> 00:16:20.353

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삶의 현장에
언제나 하나의 교과서로서,

00:16:20.378 --> 00:16:27.124

하나의 본보기로서 끊임없이
인구에 회자될 것이라 하겠습니다.

00:16:27.149 --> 00:16:31.592

여러분, 한번 이 작품을 찾아서
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00:16:31.617 --> 00:16:34.835

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
삶의 환경과 견주어서

00:16:34.860 --> 00:16:37.347

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

00:16:37.372 --> 00:16:40.777

이 사회의 문제를
다시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인가?

00:16:40.802 --> 00:16:45.456

이런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
여겨집니다.